

## 제8장 — 물 밑에서 타는 것

왕궁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세 사람은 외곽의 낮은 언덕 아래, 오래된 석조 수로 옆에 몸을 숨겼다.

밤은 여전히 짙었고, 바람은 바다 쪽에서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소금 냄새가 폐를 스치고 지나가도, 가슴 안쪽의 답답함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

“빌어먹을...”

한 단원이 낮게 내뿔었다.

그 욕은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에 가까웠다.

“완전히 읽혔어. 우리 움직임.”

다른 단원이 씩씩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수로 가장자리의 돌 위에 앉아 있었다.

칼은 무릎 위에 올려두었고, 손은 칼자루를 느슨하게 쥐고 있었다. 잡지 않는다. 쥘다. 그러나 지금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조차,

묘하게 공허했다.

보라빛 번짐.

그 찰나의 흔들림.

“그게 네 한계야.”

그 목소리가 자꾸 귓속에서 반복됐다.

당신의 숨은 일정했지만, 그 일정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깊은 곳에  
눌려 있었다.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바닷물 밑에서 천천히 압력을 키우는 수  
압처럼, 조용히, 깊게 가라앉고 있었다.

“야.”

한 단원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괜찮냐.”

대답이 없었다.

당신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손을 조금 더 조  
였다. 칼자루가 손바닥 상처를 눌렀다. 따가움  
이 올라왔다.

그 따가움이 지금 유일하게 선명한 감각이었다.  
괜찮지 않다.

실패했다.

리네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당신은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눌렀다.

**내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올라오자, 분노가 조금 더 깊어졌다.

상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달의 축복이 기울었기 때문이 아니라,

찰나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한 글자가 가슴을 눌렀다.

“야.”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렸다.

단원 하나가 당신 앞에 쫓그려 앉았다.

거친 손이 무릎 위에서 어색하게 움직이다가,  
결국 멈췄다.

“너 혼자 책임질 일 아니야.”

그 말은 솔직했다.

“우리 다 읽혔어.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단원이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더  
꼬였어. 우리가 끌려갔을지도 몰라.”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진심이였다.

당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당신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시선이 조금 비껴 있었다.

그게 두려움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실패한 순간에도 당신이 무너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조용함이.

그 깊은 침묵이.

마치 다음에 더 크게 움직일 것을 예고하는 것  
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리네 공주님이… 뭐라 하시겠냐.”

한 단원이 낮게 말했다.

“혼나면 같이 혼나자.”

다른 단원이 씩씩하게 웃었다.

“어차피 우리도 같이 갓잡아.”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당신은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같이.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조금 따뜻했다.

“보고는… 내가 한다.”

당신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은 없었다.

단원 둘이 잠깐 눈을 마주쳤다.

“같이 가.”

“그래. 같이.”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아주 작게—정말 작게—무언가가 바뀌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위에, 얇은 공감의 겹쳐졌다.

실패는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같이 겪은 실패는 사람을 묶기도 한다.

당신은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조금 실감했다.

---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문을 통과하고, 회랑을 지나고, 바닥 아래 물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을 때, 가슴이 더 조여왔다.

이곳은 평온하다.

그리고 당신은 그 평온을 지키지 못했다.

보고를 올리기 전, 당신은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왕궁의 안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회랑,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 벽에 기대 섰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분노가, 그제야 조금 더 선명해졌다.

소리를 내지 않는 분노.

누군가를 향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안쪽에서 조용히 태우는 종류의  
분노.

**다음엔 실패하지 않는다.**

그 결심은 다짐이 아니라, 강박에 가까웠다.

달빛이 기울어도,

현실이 미묘하게 흔들려도,

찰나가 비틀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손목이 다시 조금 굳었  
다.

잡지 마. 쥐어.

교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당신은 손을 풀었다.

쥐었다.

조용히.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었네.”

리네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기다리고 있었다는 얼굴.

“들어와.”

짧은 말.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리네는 이미 서류를 펼쳐두고 있었다. 하지만 손은 서류 위에 얹혀 있지 않았다. 당신과 단원 둘이 들어오자,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왔다.

“보고.”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당신은 간결하게 정리했다.

창고.

보라빛 번짐.

공간 왜곡.

예상된 움직임.

철수.

말은 짧았고, 군더더기는 없었다.

단원 둘은 필요한 부분만 덧붙였다.

리네는 끼어들지 않았다.

끝까지 들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단원 둘의 어깨가 조금씩 굳어졌다.

당신은 눈을 들어 리네를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분노가 아니었다.

아주 미세하게, 안도의 빛이 스쳤다.

짧게.

정말 짧게.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기 전에, 당신은 그것을  
봐버렸다.

안심.

그녀는 실패보다 먼저,

살아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때렸다.

리네는 곧 표정을 정리했다.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

짧은 대답.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덧붙였다.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다.

단원 둘이 고개를 숙였다.

리네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이번 건... 우리가 늦었어.”

그녀는 말했다.

“상대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섰다.”

분노는 없었다.

비난도 없었다.

대신, 책임을 나누는 말.

그 말이 단원 둘의 어깨를 조금 낮췄다.

당신은 리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당신의 시선을 느꼈는지,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아주 잠깐—정말 잠깐—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부끄러움처럼.

자신의 안심이 들켰다는 걸 깨달은 사람처럼.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다음은…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짧은 선언.

회의는 그것으로 끝났다.

단원 둘이 먼저 물러났다.

당신도 돌아서려는 순간—

“잠깐.”

리네의 목소리.

당신은 멈췄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가까웠지만, 손이 닿을 거리는 아니었다.

“이번 일로… 너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 말은 단정이 아니라, 다짐처럼 들렸다.

“그리고.”

아주 잠깐 숨을 고른 뒤.

“네가 돌아왔다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고르던 분노가 그 순간 방향을 바꿨다.

세상을 향하던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던 분노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분노로.**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더 깊이 쥐었다.

망가짐은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그 망가짐은, 아직은 안쪽에서만 타오르고 있다.

아직은.

그리고 바다의 왕궁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 평온함 아래에서,

누군가는 달빛을 계산하고 있었다.